

우승 사냥하러 '빅보이'가 간다

이대호 29일 출국...소프트뱅크 입단식·스프링캠프 돌입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야구 인생 3막을 여는 거포 이대호(32)가 29일 출국한다.

사이판에서 개인 훈련을 마치고 26일 돌아온 이대호는 29일 오전 소프트뱅크의 홈이 있는 일본 후쿠오카로 넘어가 오후 2시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이어 일본 미야자키로 이동해 2월 1일부터 막을 올리는 팀의 스프링캠프를 준비한다.

이대호는 지난해 12월 24일 소프트뱅크와 계약기간 2+1년, 계약금 5000만엔을 포함해 총액 14억 5000만엔(약 153억원)을 보장받는 조건에 계약했다. 올해에는 연봉 4억엔, 2015~2016년 각각 연봉 5억엔을 받는다.

여기에 성적에 따른 연간 옵션(2억엔 추정)을 포함하면 3년간 최대 20억엔(211억원)을 훌쩍 넘는 액수를 손에 쥔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염두에 둔 이대호는 계약 3년째에는 스승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대호는 2011년 말 오릭스 버펄로스에 입단해 2년 연속 홈런 24개, 타점 91개씩 올리고 해설사로 자리매김했다. 올겨울 투타 전력보강에 30억엔을 투자한 소프트뱅크는 그 절반을 4번 타자 이대호에게 쏟아 붓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키야마 고지 소프트뱅크 감독은 이대호를 일본에서 인기 높은 타자 기요하라 가즈히로에게 견주며 "타율도 좋고 홈런도 잘 치는 4번 타

자 스타일"이라며 올 시즌 4번 불박이로 고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일본 특유의 현미경 야구에 맞서 2년째인 2013년, 첫째(0.286)보다 더 높은 타율(0.303)을 올리고 성공적으로 적응을 마친 이대호는 퍼시픽리그 명문구단 소프트뱅크에서 프로에서의 생애 첫 우승을 꿈꾼다.

통산 17차례 리그 우승, 6차례 일본시리즈 우승을 일군 소프트뱅크라면 이대호가 정상 정복의 환희를 꿈꿀 만한 팀이다.

이대호는 스프링캠프에서 동료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뒤 2월 22일 세이부 라이온스를 상대로 첫 시범경기를 치른다. 3월 4~5일 오승환(32)이 속한 한신 타이거스와 홈에서 시범경기 2연전을 벌이고 3월 23일 히로시마 도요카프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를 마무리 한다.

연립뉴스



광주 FC 신임 주장 이완

“신바람 축구로 클래식 가겠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광주 FC의 수비수 이완은 얼마 전 선수단 앞에서 2분 스피치를 했다. 남기일 감독대행으로부터 신임 주장으로 낙점된 뒤 처음 주장 역할을 수행한 순간이다.

이완은 이 자리에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담없이 즐기면서 하자”고 얘기를 했다.

주장 이완이 바라는 것은 ‘함께 그리고 즐겁게’이다.

이완은 2006년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9년 차의 선수다. 광주 상무 선수로도 뛰었던 그는 지난해 올산을 거쳐 다시 광주에 진짜 등지를 하게 됐다.

재창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주 선수단이 대폭 바뀐 올 시즌, 광주의 새얼굴이기도 한 이완은 달력 주장 역할까지 맡게 됐다. 남 감독대행이 적극적으로 활발한 성격의 이완을 눈여겨 보다 주장 임무를 내린 것이다.

이완은 “새로 팀을 옮기면서 선수들과 두루두루 지내려고 파악하려고 했다. 기존에 아는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은 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친해지려고 다가가려고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 모습을 좋게 봐 주신 것 같다”며 “팀이 리빌딩 된 상태인데 기존에 있는 선수가 아니라 낯선 것도 있지만 감독님께서 역할을 맡기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단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남시절 부주장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프로에서 처음 맡게 된 자리.

이완은 근엄한 주장보다는 선수단을 묶을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한다. 이완은 “선수들과 소통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분위기 메이커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즐겁게 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5명 정도 선배들이 있는데 워낙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시고 후배들을 잘 챙기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 많은 선수들로 재무장하면서 광주의 재도약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만 부담감보다는 즐기면서 우승 고지로 향한 생각이다.

물러날 곳 없는 광주의 2014시즌, 이완에게도 올 시즌의 각오는 특별하다. 올산 유니폼을 입고 K리그 준우승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주인공은 아니었다. 그라운드 밖을 뒹굴면서 경기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다.

이완은 “올산이라는 좋은 팀에 있었지만 경기에 많이 나가지 못하면서 경기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 그런 열망과 열정, 아쉬움을 그라운드에 쏟아붓도록 하겠다”며 “팀이 우승하는 것이 개인 목표이기도 하다. 플레이오프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바로 1위로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 시즌을 얘기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드래곤즈의 안용우(오른쪽)가 지난 25일 태국 방콕 훈련장에서 열린 태국 프리미어리그 송크라 유니티드와의 연습경기에서 드리블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기분좋은 출발’ 전남드래곤즈

방콕 전훈 첫 연습경기 태국 송크라에 4-0 대승

전남 드래곤즈가 전지훈련 첫 연습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전남은 지난 25일 태국 방콕 훈련장에서 열린 태국 프리미어리그 송크라 유니티드와의 연습경기에서 전·후반 각각 두 골씩 넣으며 상대를 제압했다.

하석주 감독은 스타팅 멤버를 후반전에 모두 교체하며 전반적인 선수단 기량을 점검했다.

전반전 스테보를 최전방 공격수로 세운 전남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는 신인 안용우와 왼쪽 풀백으로 현영민을 투입해 선수단의 호흡을 살렸다.

임경현의 프리킥이 팽팽하던 균형을 깬다. 전반 28분 임경현이 좌측 프리킥 상황에서 직접 시도한 슈팅이 그대로 상대의 골대를 갈랐다. 1분 뒤에는 이종호가 이현승의 패스를 받아 골로 연

결하며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전남은 멤버를 모두 교체한 후반전에도 전철철과 박기동의 연속골로 승리를 자축했다.

후반 34분 상대 왼쪽 진영을 돌파하던 이인규가 코너킥 부근에서 원발 크로스를 올렸고, 장성의 박기동이 헤딩 슈트를 날리며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0분에는 전철철이 원발 슈팅으로 팀의 4번째 득점을 만들어냈다.

첫 실전 평가에 나선 하 감독은 “아직 손발이 완벽하게 맞지 않지만 강한 득점력을 선보인 것은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후반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두르는 경향과 지난 시즌 나쁜 습관이 그대로 보였다”며 “레안드리뉴, 크리즈만 이 부상과 재활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 외국인 선수들도 빨리 손발을 맞춰 팀의 조직력을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남은 2월9일 귀국 전까지 태국 프로팀과의 친선경기 및 자체 청백전 등 6~7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조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광송리도로

북고당 한약방

한약방이

새우만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